

주요 내용

1. [한국의 사회적 약자 리포트 - 노숙인 실태]
거리노숙인 10명 중 4명은 '실직'으로 거리노숙 시작해!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한국과 세계 시민의 가치관 비교
 - 2)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



거리노숙인 10명 중 4명은 ‘실직’으로 거리노숙 시작해!

노숙인하면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부랑자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된 ‘노숙인 등(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이라는 정책 개념이 만들어졌다.*

노숙인복지법에서는 기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전국 규모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조사는 2021년 조사로 2016년도 이후 2번째 조사이다.

노숙인들은 왜 집을 떠나 거리, 시설, 쪽방에 거처하게 된 것일까? 거리노숙을 경험한 노숙인에게 계기를 물었더니 43%가 ‘실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5년 전 조사 대비 17%p가 높아진 수치이다.

노숙인들은 아프고, 빈곤하고, 일 할 의지도 미약하다. <넘버즈 185호>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노숙인들의 실태와 고충, 필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 상태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등’ 정의: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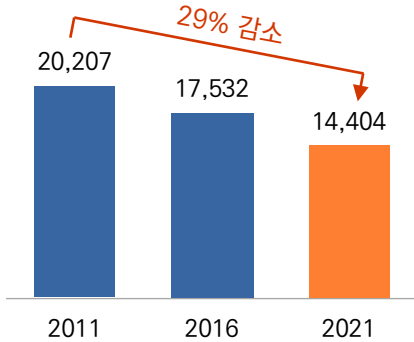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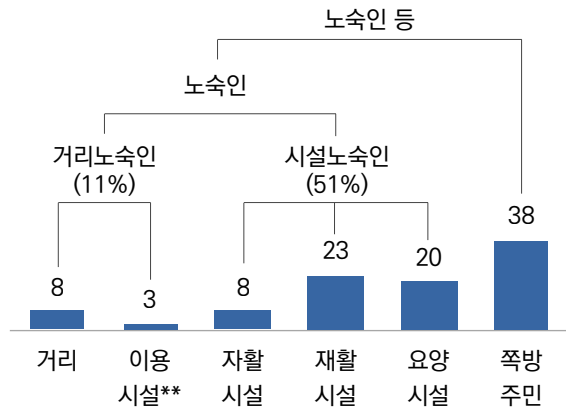
[노숙인 규모와 실태] 노숙인 규모, 10년 전 대비 29% 감소해!

- ▶ 정부에서 파악한 노숙인 등의 규모는 2011년 20,207명에서 2016년 17,532명, 2021년 14,404명으로 10년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노숙인 등의 비율은 '거리노숙인' 11%, '시설노숙인' 51%, '쪽방주민' 38%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거리노숙인은 전체 노숙인 10명 중 1명가량이다.

[그림]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 추이
(일시집계조사 기준, 명)



[그림] 전체 노숙인 등의 종류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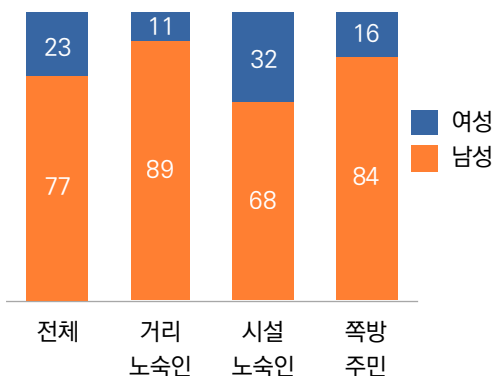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거리 노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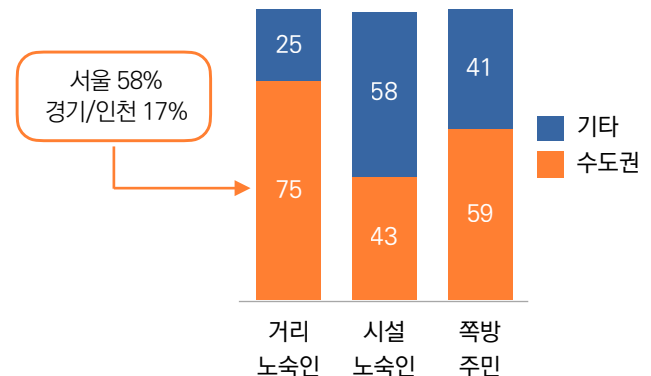
◎ 노숙인의 77%는 남성이며, 거리노숙인의 남성 비율 높아!

- ▶ 노숙인의 성별은 남성이 77%, 여성이 23%로 집계되었으며 거리노숙인의 남성 비율은 89%였다.
- ▶ 노숙인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거리노숙인의 경우 무려 75%가 수도권에, 58%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노숙인의 성별 (%)



[그림] 노숙인의 거주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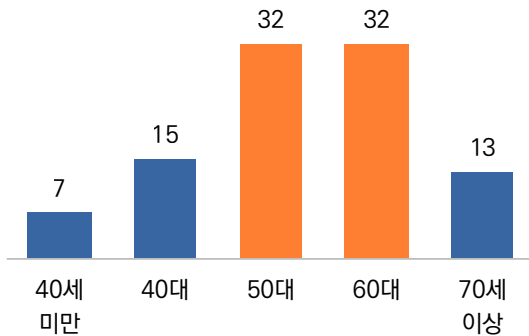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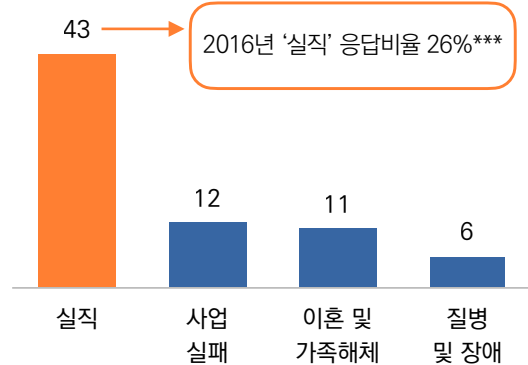
[거리노숙인의 생활] 거리노숙인 10명 중 4명은 '실직'으로 거리노숙 시작해!

- ▶ 거리노숙인의 연령은 50대와 60대가 각각 32%로 전체 노숙인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 ▶ 거리노숙을 경험한 노숙인에게 계기를 물었더니 43%가 '실직'을, 12%가 '사업 실패'라고 응답해 경제적인 실패가 결국 집을 떠나 거리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원인임을 알 수 있으며, '실직' 비율은 2016년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림] 거리노숙인의 연령** (서울, %)



[그림] 거리노숙 계기 (거리노숙 경험자, 상위 4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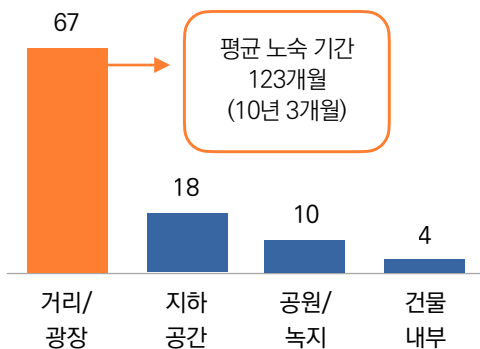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0.12.

***2016년도 조사에서는 모든 노숙인에게 질문하였고, 2021년도 조사에서는 거리노숙을 경험한 노숙인에게 질문하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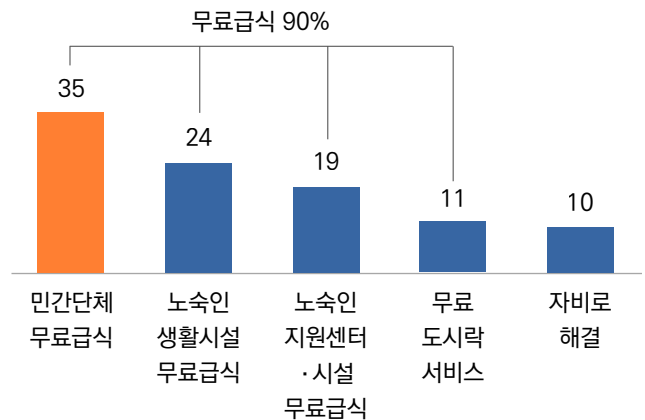
◎ 거리노숙인 3명 중 2명, 거리·광장에서 노숙하며, 평균 노숙 기간 10년 넘어!

- ▶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리노숙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거리노숙인이 가장 많이 노숙하는 장소는 '거리·광장'(67%)이 가장 많았고 '지하공간'(18%), '공원·녹지'(10%)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리·광장' 노숙인의 평균 노숙 기간은 123개월에 달해 10년 이상을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거리노숙인의 식사 해결 방법으로는 대부분 무료급식(90%)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림] 거리노숙인의 노숙 장소 (상위 4위, %)



[그림] 거리노숙인의 식사 해결 방법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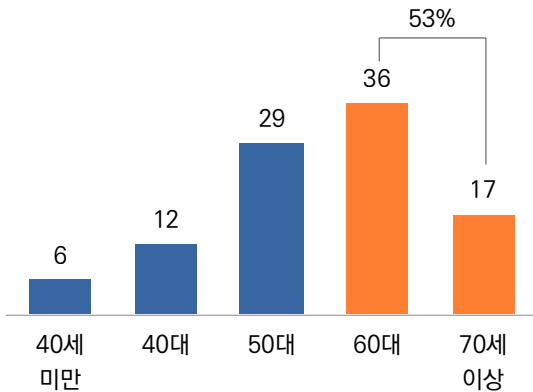
03

[시설노숙인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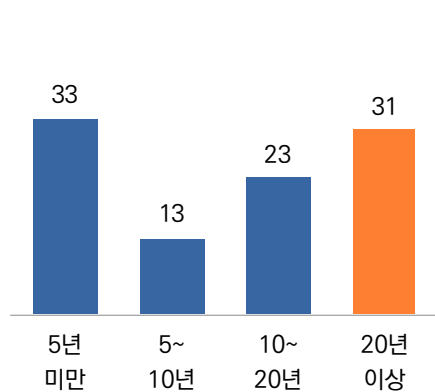
시설노숙인 10명 중 3명은 20년 이상 장기 입소자

- ▶ 이번에는 시설노숙인에 대해 살펴본다. 시설노숙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이다. '자활시설'은 건강이 괜찮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숙인을 입소시켜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며, '재활시설'은 장애와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재활과 사회 적응 훈련을 시켜 자립을 지원한다. '요양시설'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 시설노숙인의 절반은(53%) 60대 이상이며, 10명 중 3명은(31%) 20년 이상 입소해 있는 장기입소자로 나타나 노숙인들의 자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시설노숙인의 연령 (%)



[그림] 시설노숙인의 입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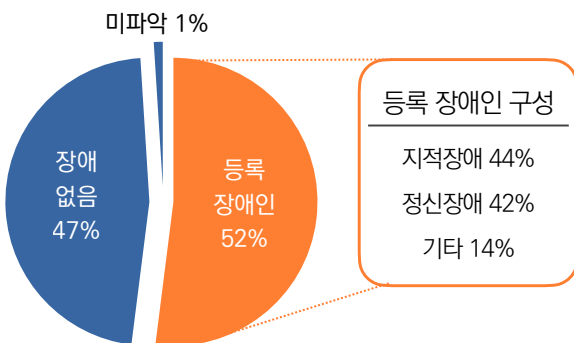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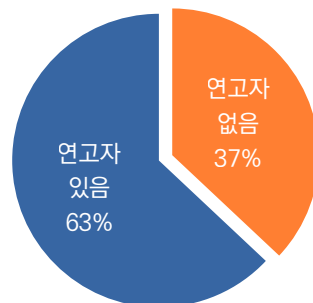
◎ 시설노숙인 절반은 장애인!

- ▶ 시설노숙인의 장애 여부를 알아봤다. 전체 시설노숙인의 52%는 등록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4%는 지적장애, 42%는 정신장애이었다.
- ▶ 시설노숙인 3명 중 1명 이상은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시설노숙인의 장애 여부



[그림] 시설노숙인 연고자 유무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04

[쪽방주민의 생활]

쪽방주민 2명 중 1명은 서울에 거주해!

- ▶ ‘쪽방’이란 ‘보증금 없이 월세나 일세를 지불하는 2평(6.6㎡) 안팎의 부엌·세면실·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거공간’을 말한다. 전국에는 10곳의 쪽방촌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전국의 쪽방은 5개 도시에서 총 5,327가구였으며, 그 중 51%가 서울에 있었다.
- ▶ ‘쪽방’은 보증금이 없는 주거시설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정의 보증금이 존재한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평균은 각각 23만 원과 22만 원이었다.

[그림] 지역별 쪽방 현황** (%)



[그림] 쪽방의 보증금과 임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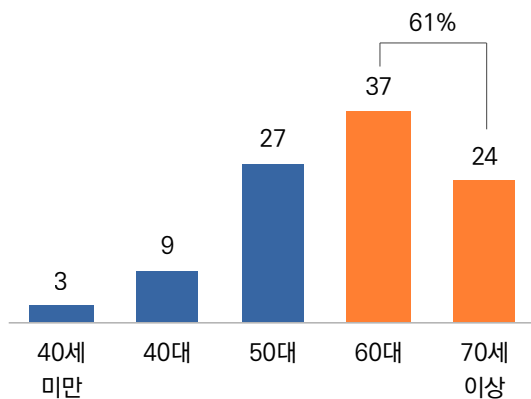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쪽방은 정부가 운영하는 쪽방상담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2022년 기준 전국 쪽방상담소는 5개도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5개소가 서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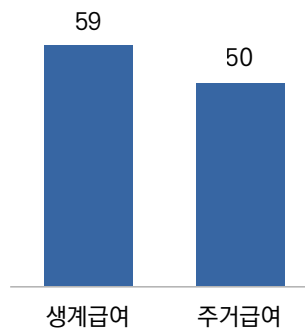
◎ 쪽방주민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고령자

- ▶ 쪽방주민의 연령은 60대가 37%로 가장 많았는데, 70대 이상도 24%나 차지해 60대 이상의 비중은 61%로 나타났다.
- ▶ 쪽방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보면 생계급여는 59%, 주거급여는 50%가 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쪽방주민의 열악한 주거생활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수급률이 높지 않았다.

[그림] 쪽방주민의 연령 (%)



[그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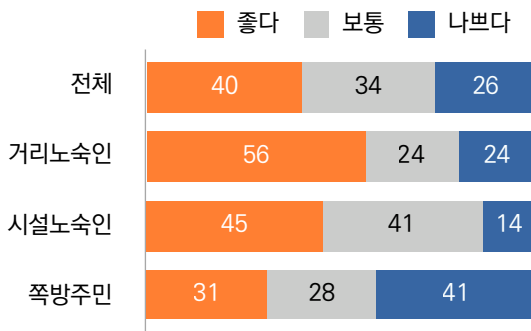
05

[노숙인의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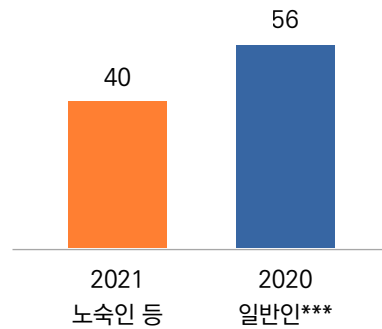
노숙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일반인에 비해 크게 떨어져

- ▶ 노숙인이 생각하는 건강 상태를 물었다. '좋다'(매우+좋다)라고 응답한 전체 노숙인의 비율은 40%이며, 거처별로는 쪽방주민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다.
- ▶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인 조사와 비교해보면 16%p나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그림] 주관적 건강상태** (%)



[그림] 일반인과 노숙인 등의 주관적 건강 상태 비교 (매우+좋다 비율,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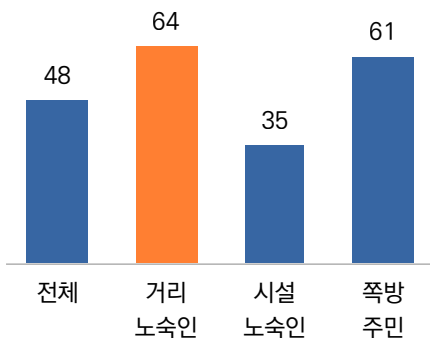
**5점 척도로 매우+약간 좋다, 매우+약간 나쁘다의 합임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청)

◎ 거리노숙인 3명 중 2명은 우울증 증상 보여!

- ▶ 우울증 평가도구**로 우울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노숙인은 전체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거리노숙인'의 64%, '쪽방주민'의 61%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나타났다.

[그림] 우울증 의심 되는 노숙인 비율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총 20문항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1문항의 축약형 버전으로 활용. 16점 이상이면 우울증 의심 수준.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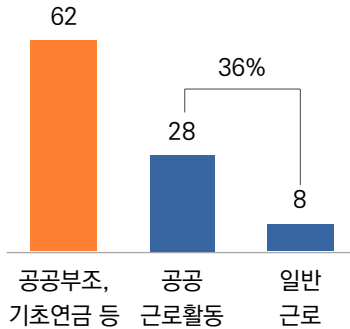
[노숙인의 경제활동] 노숙인의 월평균 소득 54만 원!

- ▶ 노숙인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을 파악해 봤다. 전체 평균 54만 원이며, 주 수입원은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이 62%였다. 근로 활동 수입의 비중은 40% 미만이었다.
- ▶ 주 지출 항목은 식료품(32%)과 주거비(30%)가 총 62%로 나타났는데, 술·담배의 비중도 14%나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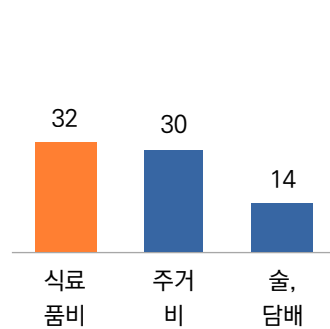
[그림]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그림] 주요 수입원 (노숙인 등, 상위 3위, %)



[그림] 지난 3개월 간 큰 비중의 지출 항목 (노숙인 등,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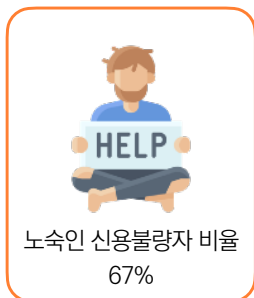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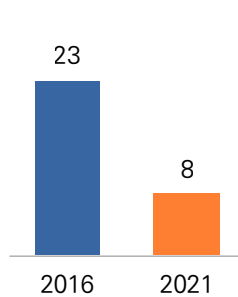
◎ 노숙인 1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원하지 않아!

- ▶ 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를 질문한 결과, 3명 중 2명꼴인 67%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 ▶ 일(직장)을 구한 경험을 물어본 결과 전체 8%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16년도 조사 결과의 23%에 비해 매우 낮아진 결과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자리 환경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거주별 노숙인 모두에게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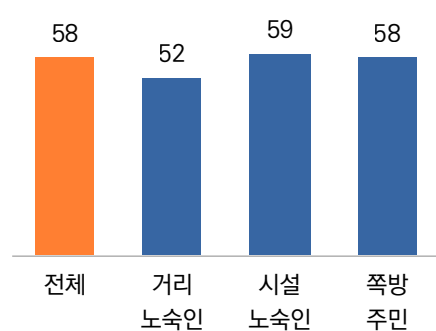
[그림] 노숙인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불자) 비율



[그림] 지난 4주내 일, 직장을 구한 경험 (노숙인 등, %)



[그림]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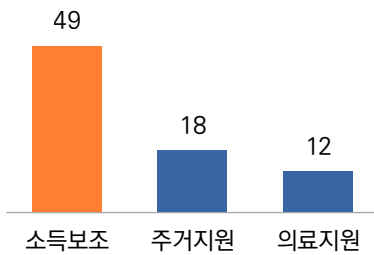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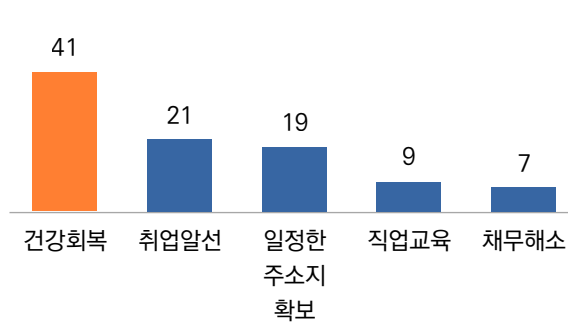
[노숙인에 대한 필요와 지원] 일자리 얻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은 ‘건강회복!’

- ▶ 노숙인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보조’가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거지원’ 18%, ‘의료지원’ 12%의 순이었다.
- ▶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숙인의 41%는 ‘건강회복’을 선택했는데, 그만큼 노숙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가장 필요한 지원
(노숙인 등, 상위 3위, %)



[그림]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노숙인 등, 상위 5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22.04.07.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2차: 1차 조사 표본 추출 1,700명 심층 면접 조사, 2021.05-07.)

**보기 중 '필요한 프로그램 없음' 제외하고 전체를 100으로 재환산한 비율

이번 <넘버즈> 분석 결과를 보면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계기로 '실직'(43%)이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다음으로 '사업실패'(12%), '이혼 및 가족 해체'(11%), '질병'(6%)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는 인간의 3대 필수 생활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일만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과 품위있는 삶을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도 집을 나와서 노숙을 할 정도가 되면 노숙은 상당히 복합적이며 심층적인 원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¹⁾ 노숙의 발생 원인을 미시적으로 보면 위에서 언급한 요인 외에도 정신건강, 알콜중독, 학대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빈곤', '주거지 부족', '주거안전망에 대한 사회 복지체계 미흡'을 들 수 있다.

노숙은 한 사회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나타내기 싫어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일본 정부는 깨끗한 도쿄를 보여주기 위해 노숙인을 거리에서 몰아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사회 안에서도 노숙인은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된다. 서울 도심을 지나다 보면 노숙인들이 젊은 여성에게 구걸을 하거나 말을 걸려고 접근하면 젊은 여성들은 기겁을 하면서 도망간다. 어쩌다 이들이 지하철을 타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어느새 저만치 거리를 둔다.

사회가 노숙인을 혐오하고 기피하므로 이들을 위한 봉사를 할 곳은 그나마 교회 밖에 없다. 노숙인 사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미국 세이비어교회의 노숙인 사역일 것이다.²⁾ 세이비어교회는 미국 워싱턴DC 중심가에 위치한 교회로서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로 유명하다. 세이비어교회는 1985년 12월 24일, 노숙인을 위한 미국 최초의 24시간 병원인 '그리스도의 집(Christ House)'을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하기 꺼려하는 노숙인을 위한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치료를 마친 노숙인들은 바로 옆에 있는 '카이로스의 집'에 가서 단계별로 재활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교회, 단체들이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다일공동체'가 가장 대표적인 노숙자 사역 단체이다. 다일공동체는 노숙인 급식 외에 천사병원을 세워 노숙인들이 의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숙인이 가장 많은 서울역 근처에 위치한 드림씨티 교회는 노숙인 선교를 부수적인 사역이 아닌 교회의 미션과 사명으로 하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식사와 잠자리 제공은 물론이고 이발, 세탁, 컴퓨터/인터넷 이용, 의료(양방, 한방, 치과) 서비스 제공, 영화상영, 심리 상담 등 노숙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역을 하고 있다.

노숙인은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노숙인에게는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사회는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남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노숙인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노숙인을 보살피는 것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쉽지 않다. 노숙인에게 필요한 것이 급식과 잠자리뿐만 아니라 목욕과 의료 서비스 등 전방위적 생활서비스이므로 교회의 사역은 노숙인의 필요를 채워주기에도 한계가 있다. 노숙인들도 몇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에 모든 교회가 직접적으로 노숙인 사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기 힘든 교회의 경우 여러 교회가 한 선교사를 협력 후원하듯이 많은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교회나 단체를 후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노숙인 선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힘을 모으는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1) 남기철, '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복지동향, 2012. 06. 15.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따옴(<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EC%9B%94%EA%B0%84%EB%B3%B5%EC%A7%80%EB%8F%99%ED%96%A52012/924711>)

2) 세이비어교회에 대해서는, 유성준, 「미국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서울:평단문화사), 2000.5 불 것.

1.[한국과 세계 시민의 가치관 비교]

2.[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

한국리서치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12개국과 뉴욕, 런던,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 등 가치관을 조사하여 최근 발표하였는데, 이 중 아시아에서는 서울, 도쿄, 북경을, 아시아 외 지역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의 시민만을 꼽아 6개국 시민의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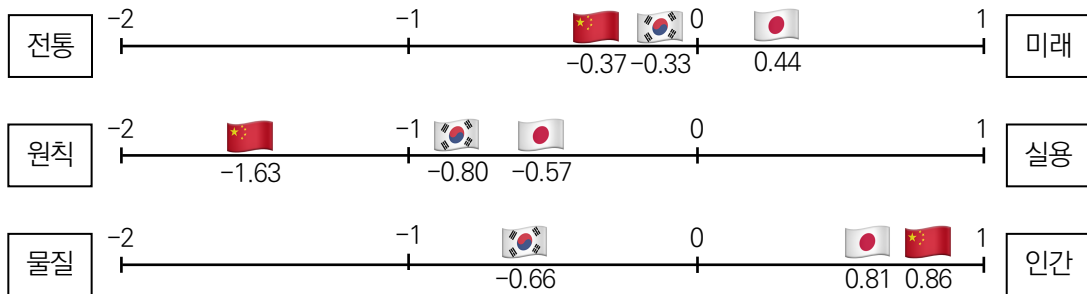


서울 시민, 도쿄와 북경 시민보다 돈(물질) 선호 경향 뚜렷!

- ▶ 서울, 북경, 도쿄 시민들에게 ‘전통과 미래’, ‘원칙과 실용’, ‘물질과 인간’ 중 어느 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어 점수로 평가하게 한 결과, 서울은 도쿄, 북경과 비교했을 때 물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도쿄와 북경 시민들은 물질보다는 인간을 중시한다고 응답했다.
- ▶ 또, 서울과 북경 시민의 경우 전통과 미래 가운데 전통을 선택한 데 반해 도쿄 시민은 미래를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동북아 3개국 도시 시민 가치관** (점)

🇰🇷 서울 🇨🇳 북경 🇯🇵 도쿄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인의 신념과 가치 조사(2) 보고서: 15개국 가치관 비교를 중심으로, 2023.02.23. (15개국 주요 도시 거주 만 18세~59세 남녀 각 국가별 700명씩 총 10,500명, 온라인 조사, 2022.11.0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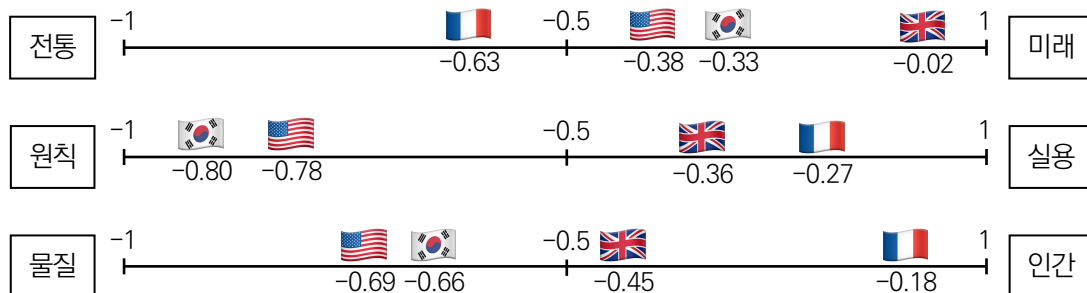
**국가 간 차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실측보다 상대적 위치를 중점적으로 표시했음을 유의
Note) -2점에서 2점으로 5점 척도임

◎ 미국 뉴욕 시민의 가치관, 서울과 매우 유사!

- ▶ 아시아 외 지역인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의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위와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세 도시 모두 공통적으로 미래보다는 ‘전통’, 실용보다는 ‘원칙’, 인간보다는 ‘물질’을 중시한다고 응답했다. 파리의 경우는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 ▶ 한편 서울과 뉴욕의 시민들은 약간 전통적인 경향이 있으면서 원칙을 중시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었다.

[그림] 서울, 뉴욕, 런던, 파리 가치관 (점)

🇰🇷 서울 🇺🇸 뉴욕 🇬🇧 런던 🇫🇷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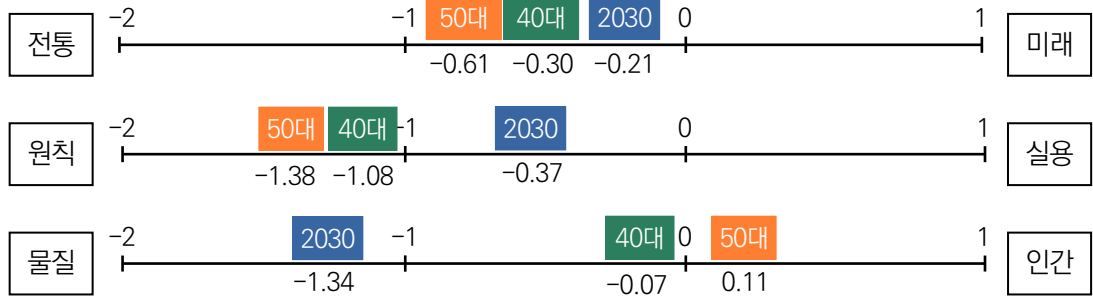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인의 신념과 가치 조사(2) 보고서: 15개국 가치관 비교를 중심으로, 2023.02.23. (15개국 주요 도시 거주 만 18세~59세 남녀 각 국가별 700명씩 총 10,500명, 온라인 조사, 2022.11.04.~14)

◎ 서울의 세대별 가치관 차이, 2030세대 ‘물질 선호’, 50대는 ‘인간적 가치’ 추구!

- ▶ 서울 시민의 세대별 가치관을 살펴보면 2030세대에서는 물질 선호 경향이 강한 게 특징적이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과 원칙을 추구하고, 물질보다 인간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림] 서울 시민의 세대별 가치관 비교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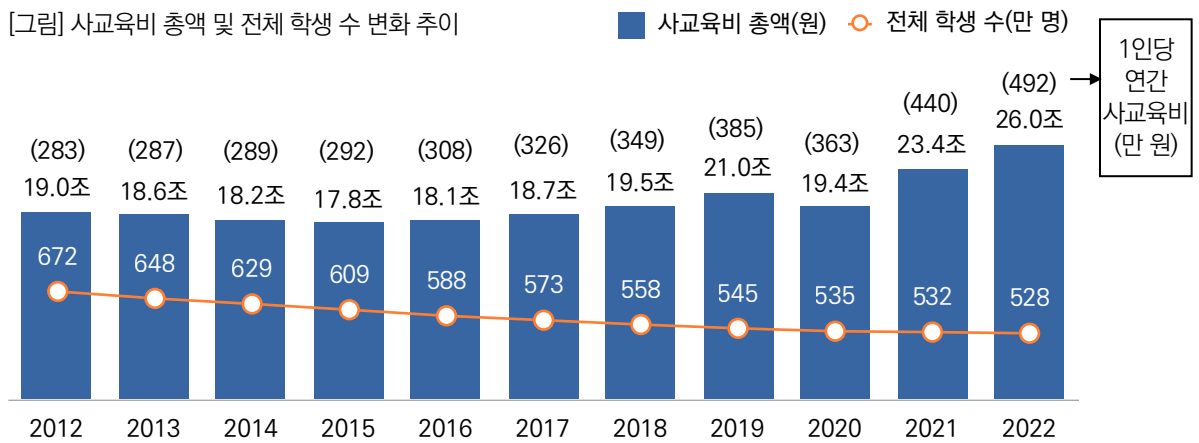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인의 신념과 가치 조사(2) 보고서: 15개국 가치관 비교를 중심으로, 2023.02.23. (15개국 주요 도시 거주 만 18세~59세 남녀 각 국가별 700명씩 총 10,500명, 온라인 조사, 2022.11.04.~14)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0년 새 74% 증가!

- ▶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10년 전(2012년) 대비 3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2년 672만 명에서 2022년 528만 명으로 21% 가량 줄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 ▶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012년 283만 원에서 2022년 492만 원으로 10년간 무려 74%가 증가하였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사교육비 총액 및 전체 학생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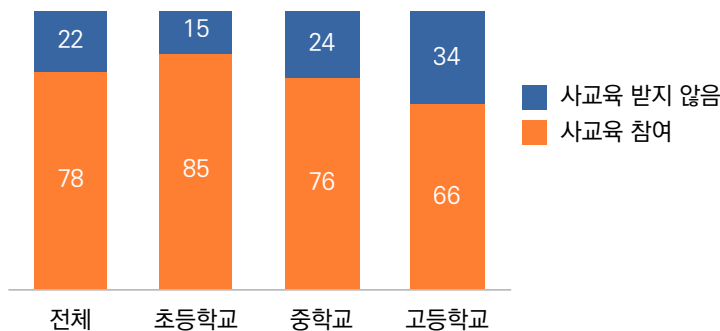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교육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03.07.(2022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각 연도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참조)

**사교육비의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사교육 받지 않는 초중고 학생, 10명 중 2명에 불과

- ▶ 전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로 10명 중 8명은 학교 외 학원 교습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 ▶ 사교육 참여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8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6%, 고등학교 66% 순이었다.

[그림] 사교육 참여율 (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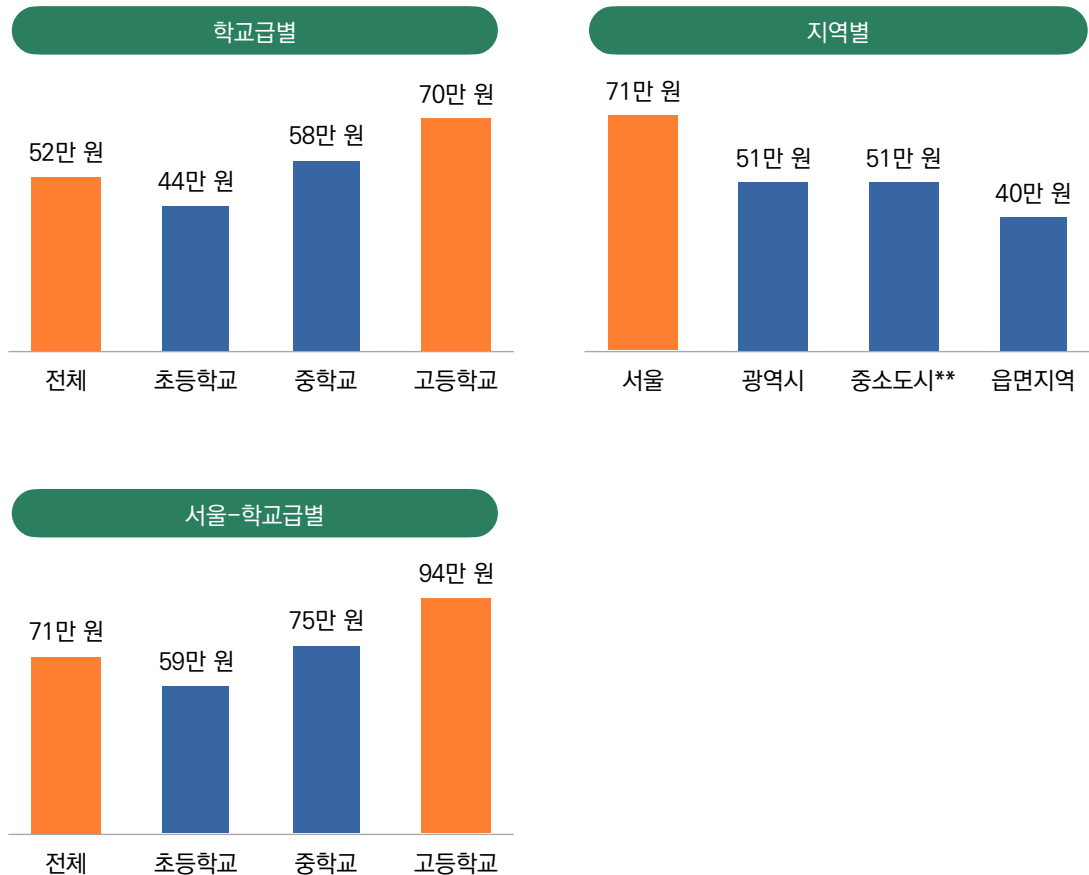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교육부,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03.07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 71만 원!

-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일까?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작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원으로 집계됐다. 학교급과 지역별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가 70만 원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59%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71만 원으로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서울 지역만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59만 원, 중학교 75만 원이었고, 고등학교는 94만 원으로 월평균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울이 전국평균보다 사교육비를 37%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22, 참여학생 기준)



*자료 출처 : 통계청/교육부,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03.07.

**중소도시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를 제외한 일반시(市)의 동(洞)지역.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35호 \(2023년 3월 4주\)](#)

- 국회의원 정수, 선호 선거구제 등

[갈수록 일 안하는 국회... 21대 상임위 회의 횟수, 19代보다 17% 줄었다](#)

동아일보_2023.03.25.

◎ 사회 일반

['하나만 남아 기르자'...출생아중 첫째아 비중 63%로 사상 최고](#)

연합뉴스_2023.03.26.

[행복한 나라, 韓 57위로 OECD 최하위권... 1위는?](#)

동아일보_2023.03.21.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생각 변화 및 정책 평가](#)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_2023.03.21.

[농민 10명 중 7명 "농사 그만두고 싶다...생계 유지 어려워"](#)

동아일보_2023.03.17.

["1~2월 가족 해외여행, 작년보다 162배 늘어"](#)

동아일보_2023.03.23.

["첫 성경험 언제?" 물어보니...남성 66% 여성 57%, 이 때였다](#)

중앙일보_2023.03.21.

[상위 0.1% 고소득자 33억원 벌었다...하위 20%와 1400배](#)

중앙일보_2023.03.21.

[대한민국 상위 1% 부자, 순자산 얼마나 있을까](#)

조선일보_2023.03.16.

[은퇴 임박한 5060, 순자산 3억 모았으면 평균... 상위 10%는?](#)

조선일보_2023.03.22.

[2023 주변국 외교 관계 인식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_2023.03.22.

['노량진 컵밥' 40% 문 달았다... '신의 직장' 외면하는 MZ세대 왜](#)

중앙일보_2023.03.28.

◎ 청년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하락...청소년층만 증가](#)

연합뉴스_2023.03.2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후 / 환경

[기후변화 최종경고... "근미래 지구 전지역서 기후재앙 늘어난다"](#)

연합뉴스_2023.03.20.

◎ 경제 / 기업

["3년차 이하 직장인 10명중 8명 퇴사·이직 고민"](#)

연합뉴스_2023.03.17.

['주52시간' 늘려야 한다지만, 취업자 희망 근무시간은 36.7시간](#)

연합뉴스_2023.03.19.

[직장 찾아서...부·울·경 대졸자 10명 중 4명이 타지로 떠났다](#)

중앙일보_2023.03.23.

◎ 건강

[40대 초반 신부 20대 초반보다 많다, 의학적 노산 기준은...](#)

헬스조선_2023.03.20.

[국민 10명 중 7명, '술 1군 발암물질' 모른다... "한두잔도 위험"](#)

동아일보_2023.03.21.

◎ 기독교 / 종교

[한국교회, 대한민국보다 5년 빨리 늙어간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03.23.

[美 교회 81% "대면·온라인예배 병행할 것"](#)

더미션(국민일보)_2023.03.23.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감리회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우리 연구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함께 감리회 농어촌교회 담임목회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교회 및 목회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감리회 농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후 2시
장 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교회
문 의 : 사회농어촌환경부 02-399-4340